



### 라틴아메리카의 전환 - 변화와 갈등 (상)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엮은이)

출판사: 한울(한울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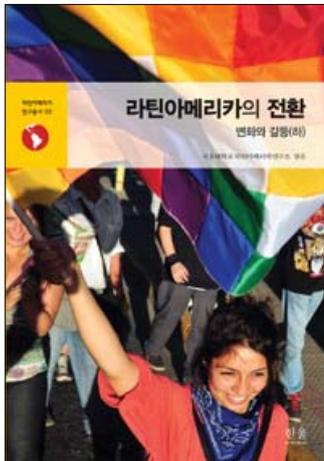
출간일: 2012-06-20

ISBN(13): 9788946054523

512쪽 | 223\*152mm (A5신)

지금 라틴아메리카는 중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전환의 기로에 선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매우 다양한 대항헤게모니운동이 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라틴아메리카가 지난 30~40년 동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가장 먼저, 가장 강도 높게 적용되었으며, 가장 먼저 해체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을 위한 유일하고 필연적인 모델이라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2008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HK)사업에 선정되어 21세기 인류 역사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되는 두 권의 연구총서는 1단계 어젠다 “라틴아메리카의 전환: 변화와 갈등”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모은 것이다.



### 라틴아메리카의 전환 - 변화와 갈등 (하)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역은이)

출판사: 한울(한울아카데미)

출간일: 2012-06-20

ISBN(13): 9788946054530

520쪽 | 223\*152mm (A5신)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2008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HK)사업에 선정되어 21세기 인류 역사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되는 두 권의 연구총서는 1단계 어젠다 “라틴아메리카의 전환: 변화와 갈등”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모은 것이다.



### 변화하는 라틴아메리카 - 세계화와 근대성

그리스도발 까이 | 로버트 N.그윈 (역은이) | 박구병(옮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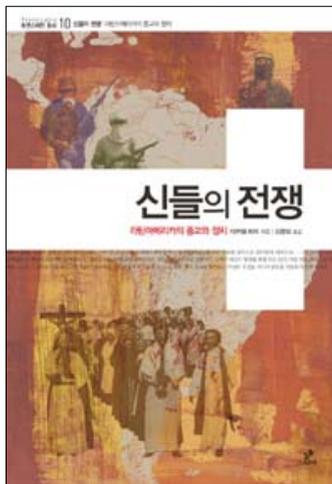
출판사: 창비

출간일: 2012-05-15

ISBN(13): 9788936482619

717쪽 | 223\*152mm

20세기말부터 세계화와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험장이 되었던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국내외적 상황에 대한 정밀하고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그 변화의 의미와 미래의 전망을 담은 방대한 연구서. 격동의 시기를 보냈던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인 궤적은, 한 세대의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위기와 변화에 중요한 참고가 될 만하다.



## 신들의 전쟁- 라틴아메리카의 종교와 정치

미카엘 뢰비 (지은이) | 김향섭 (옮긴이)

출판사: 그린비 |

출간일: 2012-05-05

ISBN(13): 9788976827609

264쪽 | 225\*152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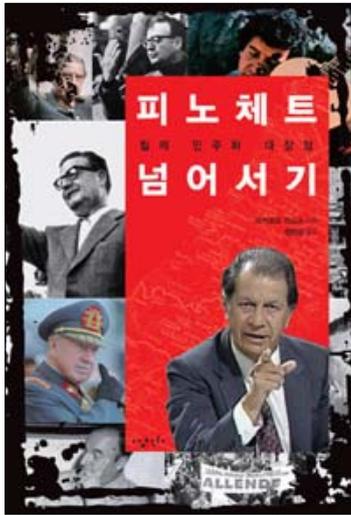
그린비 트랜스라틴 총서 열 번째 책. 국내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소개된 바 없지만 왕성한 저술활동과 사회운동 참여로 국제적인 인

정을 받고 있는 미카엘 뢰비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의 ‘해방그리스도교’를 이론적 측면에서, 그리고 실천적 · 역사적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역작이다.

이 책에서 뢰비는 칼 맑스와 막스 베버의 논의를 통해 가톨릭의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고찰하는가 하면, ‘종교는 보수적’이라는 일반적인 이해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언설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거부하고 주요 맑스주의 이론가들의 종교 인식을 살펴 맑스주의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접점을 찾아내는 탁월한 이론적 작업을 전개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브라질,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 라틴아메리카 각지에서 그리스도교와 민중 운동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 분석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해방그리스도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책의 제목인 ‘신들의 전쟁’은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따온 것으로 두 가지 ‘전쟁’을 의미한다. 그 중 하나는 진보적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 개념과 보수적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 개념 사이의 투쟁이고, 더 중요한 다른 의미는 해방신학의 신과 자본주의의 우상들(돈, 시장, 상품, 자본 등) 사이의 전쟁이다.



### 피노체트 넘어서기- 칠레 민주화 대장정

리카르도 라고스 (지은이) | 정진상 (옮긴이)

출판사: 삼천리

출간일: 2012-06-15

ISBN(13) : 9788994898087

400쪽 | 223\*152mm (A5신)

급진주의 경제학자, 사회주의 정치가로 칠레를 통해 피노체트의 독재를 종식시키고 마침내 집권에 성공한 전 칠레 대통령 리카르도 라고스가 쓴 칠레 현대사 비망록이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떠벌이는 정치인들의 흔한 회고록과는 다르다.

독재정권 아래에서 투옥된 뒤 망명길에 올랐고 다시 돌아와 ‘칠레 민주화 대장정’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했지만, 한 걸음 물러나 한 사람의 증언자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객관성을 잃지 않는다. 지은이 스스로 “40여 년 동안 칠레 사람들이 걸어온 집단을 그려 보려고 했다”고 말했듯이, 마치 한 편의 기록영화를 보는 느낌이다.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며 사회주의 정치가로서 사회당을 재통합하고 피노체트 반대 세력을 결집시킨 지은이는 콘세르타시온이 집권한 두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과 공공사업부 장관으로 일하며, 교육개혁과 공공 사회 기반 시설의 혁신에 헌신했다. 2000년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 우파의 호아킨 라빈을 꺾고 드디어 살바도르 아옌데 이후 30년 만에 사회주의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이 퇴임한 뒤 2006년에 사회당의 미첼레 바첼레트가 후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현재는 2010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우파 ‘변화를 위한 연합’의 세바스티안 피네라가 집권하고 있다.